

천사의 집 주민자치회 회의

후원자분의 따뜻한 후원이 세상을 아름답게 합니다.

농협은행 827104-51-003689
예금주 천사의 집

주제: 겨울철 대비하기-나만의 노하우 공유

11월 2일, 원내 강당에서 주민자치회 회의를 통해 "겨울을 대비하기-나만의 노하우 공유"를 주제로 주민들이 서로의 경험과 지혜를 나누는 시간이 진행되었다. 진행교사의 간단한 인사 후, 월중 행사 계획 안내가 이어졌고 순화선 회장의 사회로 본격적인 의견을 나누었다.

김○연 이용자는 "추울 때는 잠바를 따뜻하게 입고 산책을 갔으면 좋겠다"고 말하였다.

정○현 이용자는 "강당에서 영화관람을 하면 된다"며 실내활동을 추천했다.

이○희 이용자는 "옷을 여러 겹 입으면 따뜻하다. 밖에 나갈 때는 두꺼운 외투만 잘 챙기면 된다"고 겨울철 복장 팁을 전했다.

김○강 부회장은 "바람이 조금 불어도 산책을 했으면 좋겠다. 추울수록 운동을 하면 몸이 따뜻해진다"고 조언했다.

김○미 이용자는 "춥다고 호주머니에 손 넣고 다니면 위험하니 장갑을 착용하는 것이 좋다"고 안전과 관련하여 의견을 냈다.

마무리로 순화선 회장이 "한마음 복합센터에서는 실내라 춥지 않아 운동하기 좋다. 친구들이 많이 갔으면 좋겠다"고 의견을 보냈다.

자유발언

자유 발언으로는 생활 속 불편한 부분을 짚어보고 개선사항에 대해 이야기 나누었다.

김○라 이용자는 "방에 전등 불이 안들어오는게 있어서 갈아줬으면 좋겠다"라고 말하여 확인하고 수리를 해달라고 하였다.

김○강 부회장은 "본관 1층부터 3층까지 청소기 돌릴 때 사용하는 전기선이 있으면 좋겠다"고 건의하였다.

하○현 이용자는 "샤워기에 물이 잘 안나와서 불편하다"고 말하며 확인해달라고 요청하였다.

이○우 이용자는 "비행기 타고 미국 여행을 가고 싶다"며 새로운 장소로의 여행을 희망한다고 하였다.

이번 회의를 통해 주민들은 서로의 겨울 준비 노하우를 나누며 유익한 시간을 보냈다. 자유 발언 시간에는 생활 속 불편함을 솔직하게 공유하며 함께 개선 방향을 모색하는 뜻깊은 논의가 이루어졌다. 제기된 의견들은 확인 후 순차적으로 반영해 더욱 편안한 생활 환경을 만들어갈 예정이다. 앞으로도 주민들이 함께 소통하고 참여하는 자리가 지속되기를 기대한다.